

광주시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34세 이하 청년 대상 취업 역량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 '희망 잡클래스' 시행

광주지역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희망 잡클래스' (Job Class) 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광주시는 "희망 잡클래스 사업은 저소득 빈곤층 청년을 비롯해 가족,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맞춤형 일자리 복지지원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의 대

물림을 차단하고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광주만의 복지정책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전 컨설팅, 가족코칭 등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부터 직업훈련·교육 연계지원,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격증 등 취업조건을 수료한 청년에 대해서는 광주와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선한다.

광주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갖고 참여자 욕구조사 등 현장 의견도 듣는다.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일자리관련 기관 등이 연계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4월 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광주시는 4월 중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5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쁜 광주지역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 저임금 청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수중에 100만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노동자들은 월평균 134만원을 벌며 10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 취업역량이 결정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망 잡클래스 사업'이 꿈을 잃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노정협 위원 위촉식 갖고 활동 본격화

광주시 노정협(노년·정년·청년)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정협(노년·정년·청년)은 현대자동차의 광주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협력 기구이다.

광주시는 27일 노사상생도시 실현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정협(노년·정년·청년)'을 구성하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위원 위촉식과 2019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정협(노년·정년·청년)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지역 노동계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 조정, 중재, 해결 등의 현장 활동을 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정열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위원장, 박래원 한국전력

KPS 노동조합 위원장이, 광주시의회에서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이 참여한다.

시민사회 전문가로는 유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박사,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백석 대표 등이, 광주시에서는 박남민 일자리경제실장, 손경중 전라산업국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하희섭 노동협력관이 함께 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지난 1월 14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한 것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며 "노정위원회가 지역의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조정,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복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제1기 복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이 27일 광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적극적인 구정참여 활동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재심의 논의 중단

농협 제기 소송 결과 후 추진
광주 광산구가 금고 운영기관 지정을 농협은행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금고 지정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금고 지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금고 운영기관 선정 방향을 가른다.

광산구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금고 운영기관 심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운영권 제안서를 낸 광주·KB국민·농협은행과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 3곳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만큼 광산구는 재심의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농협과의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3년 단위로 체결한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는데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1~2개월 단위로 올해 5월까지 계약을 연장 중이다.

광주은행도 현재 법적 분쟁이 1금고에 국한됐으며 2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심의 결과대로 이행하러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 명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무원과 광산구의회의 의장, 은행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 심의위원 명단 유출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절차나 평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소송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환경단체 '수영대회 기간 무등산 친환경차 안돼'

광주시가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무등산 국립공원에 친환경 차를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등 8개 환경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은 무등산 이용이 아닌 복원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오히려 이용과 개발을 계획하는 광주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군부대 이전은 대상지 문제에 부딪혀 몇 년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중봉과 장봉재 일원 방송통신시설 이전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지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천·영산강변 '자전거길 거점 터미널' 운영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 변 자전거길 이용객 편의를 위해 30일부터 '강변 속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한다.

다리 아래의 여유 공간에 생기는 거점터미널에서는 자전거 무상 수리와 대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광주천의 용산교·동천교와 영산강의 극락교·산동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4월 13일부터 승촌보, 어등대교, 첨단교, 중앙대교에서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각 거점터미널에 자전거 전문

가 2명을 배치해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동천교, 첨단교, 산동교, 중앙대교, 어등대교 등 5곳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지난해 총 43차례 거점터미널을 운영해 1만8천여 명의 광주시민이 이용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세계김치연구소,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

세계김치연구소는 27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가 연구소의 농축산물·식품·미생물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국내외 각종 시험기관의 자격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17년 10월 광주·전

남지역 최초로 식품과 미생물 분야 총 31개 항목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추가한 항목은 농축산물 분야 9개, 식품 분야 2개, 미생물 분야 2개로 13개 항목이 추가돼 모두 44개 항목으로 늘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